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 대상 사교육의 실태*

Trends in Private After-School Lessons for Preschooler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as a Function of Children's Age, Socioeconomic Status, and Mothers' Employment Status*

도현심(Hyun-Sim Doh)¹⁾

박보경(Bo-Kyung Park)²⁾

김수진(Soo-Jin Kim)³⁾

조숙인(Sook-In Cho)⁴⁾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rends in private after-school lessons for preschooler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as a func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children's age, socioeconomic status, and mothers' employment status. One thousand and sixty-three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ir children's participation in private after-school lessons.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one-way ANOV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demonstrated that older children and children from higher income and full-time homemaker families attended more private lessons. Age of children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mo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at is, older children had more after-school lesson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to focus on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excessive private lessons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Key Words : 사교육(private after-school lessons), 아동의 연령(children's ages), 사회경제적 수준(socioeconomic status), 어머니의 취업 여부(mothers' employment status).

* 본 연구는 (주)현대카드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¹⁾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협동과정 교수

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³⁾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박사과정

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Psychology/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의 사교육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현안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높은 교육열, 출세 지향주의와 학력 위주의 경쟁적 사회 특성과 더불어 더욱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관점(Bruner, 1962)에서, 초창기의 사교육은 공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실시된 일종의 조기교육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교육 또는 조기교육은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되어, 초기에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학습요령을 잘 터득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우남희 · 백혜정 · 김현신, 2005), 음악, 미술 등 예능교육과 같은 조기교육 경험은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이옥, 1997). 그러나,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과 더불어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매년 급증하여 2008년에는 20조 원을 넘어서면서(문화일보, 2009. 6. 24),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사교육을 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고, 아동의 발달상태, 흥미나 관심, 능력 등과 관계없이 한 아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교육을 받는 등(우남희 · 현은자 · 이종희, 1993) 사교육이 과열화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아동이 어린 연령부터 많은 종류의 사교육에 노출됨으로써 인지적,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신의진, 2001; 홍은자, 2001; Burts, Hart, Chaleswort, & Kirk, 1990; Clouder, 2004; Elkind, 1987; O'Brien, 1988; Soderman, 1984)는 점에서 시작된다.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사교육은 유아의 지식습득 및 자기효능감과 자기학습조절능력 향상에 큰 효과가 없었으며(우남희 외, 2005; 최명숙,

2006), 학업불안이나 우울감과 더불어 정서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임자성 · 채규만, 2005). 사교육은 또한 아동으로 하여금 주변사람들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하거나 자기과시의 경향을 갖게 하고(우남희 외, 2005),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권정윤, 2007; 백혜정 · 김현신 · 우남희, 2005). 이와 같이, 사교육이 성장기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실태에 대한 연구자들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사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들은 사교육의 경험 유무를 비롯하여, 주당 사교육 시간과 사교육의 종류 및 가짓수 등 사교육의 전반적 실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김보림, 2007; 박수진, 2001; 박지연 · 이숙현 · 백진아, 2005; 안지영, 2003; 우남희 외, 1993; 이기숙 · 장영희 · 정미라 · 홍용희, 2002; 황혜신, 2003). 사교육을 받는 아동의 비율과 사교육 시간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점은 선행 연구에서 쉽게 발견된다. 1990년대에 보고된 연구결과(우남희 외, 1993)에 따르면, 3~15세 아동 가운데 76.9%가 취학 전인 유아기에 사교육 경험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학생의 65.6%, 초등학생의 75.4%, 유치원생의 92.3%가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 동안의 조기 사교육이 점차 과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주당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대상 아동의 43.2%와 11.0%가 각각 6~10시간과 11~15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유아기 아동의 비율은 93.3~94.9%로 상당히 높고(김보림, 2007; 박수진, 2001), 만 3~5세 아동 가운데 83.9%가 주당 10시간 이내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수진, 200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표집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되긴 하였으나, 대부분 중류층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지난 몇 년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는 사교육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최근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동이 받고 있는 사교육 종류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 미술, 서예, 수영, 무용, 태권도, 컴퓨터, 속셈, 주산, 웅변, 속독, 영재교육, 영어뿐만 아니라 성악, 테니스, 골프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1990년대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 아동의 경우 학습지와 피아노, 미술, 수영 등 예체능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가장 빈번히 실시되었으나(우남희 외, 1993),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영어(65.4%), 미술(58.1%) 한글(54.7%)과 같은 교과영역이 부각되었으며, 특히 영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박수진, 2001).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사교육 종류로 수학, 국어, 영어, 한글(안지영, 2003)이나 미술과 한글, 수학, 영어(김보림, 2007; 이기숙 외, 2002)를 꼽는 등, 공통적으로 한글과 영어, 그리고 미술 사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와 유사하게, 초등학교의 경우도 최근에는 주요 교과목 혹은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이 주로 실시되고 있다(임자성·채규만, 2005).

유아를 대상으로 한 평균 사교육 가짓수는 1.98~2.64가지로 연구자마다 유사하게 보고하고 있다(박지연 외, 2005; 안지영, 2003; 우남희 외, 1993; 황혜신, 2003). 즉, 유아의 경우, 1~2가지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주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3가지 이상(이기숙 외, 2002)이나 4가지(김보림·엄정애,

2007; 박수진, 2001)로 보고되기도 한다. 또한, 유아기 아동이 적게는 1가지, 많게는 8가지(안지영, 2003), 10가지(김보림·엄정애, 2007), 12가지(박수진, 2001)의 사교육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동이 받고 있는 사교육 가짓수는 아동의 연령과 더불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학령기 아동이 평균 4.27가지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오지수·이규민·강진구, 2009)도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교육의 실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한 그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몇몇 연구들은 아동의 성별 및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및 월수입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였다(김보림, 2007; 박지연 외, 2005; 안지영, 2003; 이기숙 외, 2002).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아동의 성별은 사교육 가짓수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지 않은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시하는 사교육 가짓수와 사교육을 3가지 이상 받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이기숙 외, 2002). 구체적으로 4세 아동은 평균 1.65개의 사교육을 받는 데 비해, 5~6세 아동은 2~3개의 사교육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지영, 2003).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연구들은 그 세부 항목으로 부모의 교육수준 및 아버지의 직업과 가정의 월수입을 포함시켰다. 고학력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보다 많은 가짓수의 사교육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 자녀에게 3가지 이상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어머니들 가운데 4년제 대졸 이상과 고졸은 각각 46.1%와 27.1%를 차지하였다(박지연 외, 2005). 또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비전문직의 경우에 비해 자녀에게 보

다 많은 가짓수의 사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이기숙 외, 2002).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정은 자녀에게 평균적으로 4.24개의 사교육을 실시한 반면,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가정은 평균 2.20개의 사교육을 제공하였다(김보림·엄정애, 2007). 이는 월수입이 100~2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유아는 1가지,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가지의 사교육을 받는다는 다른 연구결과(이기숙 외, 2002)에서도 일관적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의 학력 및 직업, 월수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사교육 가짓수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교육 실태는 다소 비일관적인 연구결과가 발견되고 있다.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녀에게 더 많은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이기숙 외, 2002)가 보고되는가 하면,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아동의 사교육 가짓수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결과(박지연 외, 2005)도 보고된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교육 실태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종합해 보건대, 선행 관련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들 가운데 자녀의 연령(이기숙 외, 2002), 어머니의 교육수준(박지연 외, 2005)과 아버지의 직업(이기숙 외, 2002), 가정의 월수입(박지연 외, 2005; 안지영, 2003; 이기숙 외, 2002)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박지연 외, 2005; 이기숙 외, 2002)와 같이 일부 변인만을 고려하거나,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어머니에 초점을 둠으로써(박지연 외, 2005; 안지영, 2003),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사교육의 실시 여부(이기숙 외, 2002)나 가짓수(박지연 외, 2005; 안지영, 2003; 이기숙 외, 2002)에 초점을 둠으로써 사교육 시간 및 종류를 포함한

사교육 실태 변인을 다양화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교육 실태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시도한 몇몇 연구들(박지연 외, 2005; 안지영, 2003; 이기숙 외, 2002) 가운데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 세 가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사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기 혹은 학령기에 속하는 소수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됨으로써 연령에 따른 사교육 실태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즉, 유아를 포함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를 포함한 1990년대의 연구(우남희 외, 1993)를 제외하고, 유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을 비교한 최근 연구는 드물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김보림, 2007; 박수진, 2001; 박지연 외, 2005; 안지영, 2003; 이기숙 외, 2002)은 주로 유아기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대부분 영어 사교육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경혜순, 2007; 권혜미, 2004; 김지연, 2001; 정양수·김경애, 2008; 정진석, 2002), 학령기 아동의 전반적인 사교육 실태에 대한 자료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선행 연구들의 상당수가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최근 들어 사교육이 조기화 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교육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유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사교육 실태가 서로 다른 발달단계에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교육과 관련하여, 사교육 실시 여부, 주당 사교육 시간, 사교육 종류 및 가짓수 등의 사교육 실태가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

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또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각각에 따라 사교육 실시 여부, 주당 사교육 시간, 그리고 사교육 종류 및 가짓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사교육 실시 여부, 주당 사교육 시간, 그리고 사교육 종류 및 가짓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의 강남 및 강북 지역과 신도시에 거주하는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1,063명의 어머니들이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557명(52.4%), 여아가 506명(47.6%)이며, 연령은 만 3~5세, 만 6~8세(초등학교 1~3학년), 만 9~11세(초등학교 4~6학년)가 각각 312명(29.4%), 408명(38.4%), 343명(32.3%)이다. 부모의 연령은 대부분 30~40대(부 : 96.6%, 모 : 97.4%)이며, 교육수준은 대졸 및 대학원졸(부 : 92.2%, 모 : 84.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또는 공무원(50.6%)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63.5%)가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 평균은 약 453만원

으로서, 2008년도 1/4분기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의 소득 5분위수 가운데 4분위(평균 : 약 449만원)에 가깝다(통계청, 2008).

2. 조사도구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척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척도는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을 묻는 총 4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연령은 아동의 발달단계 가운데 하나인 유아기와 학령기로 구분하되, 학령기는 아동의 연령차를 고려하여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의 연령집단에는 만 3~5세의 유아기,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인 학령기 초기 및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인 학령기 후기 등 3개 집단이 포함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수입을 통해 측정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 대졸 및 대학원졸 등 3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가정의 월수입의 경우, 선행 연구들(박지연 외, 2005)에 근거하여 15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통계청(2008)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의 소득 5분위수를 고려하고 집단간 차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150~349만원, 350~549만원, 550~749만원 등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08년도 1/4분기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의 소득 5분위수의 평균이 1분위는 133만원, 2분위는 241만원, 3분위는 334만원, 4분위는 449만원, 그리고 5분위는 797만원인 점(통계청, 2008)에 근거할 때, 월수입이 150~349만원 및 350~549만원 집단은 각각 2~3분위 및 4분위의 평균에 속하며, 550~749만원 집단은 5분위의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2개 집단으로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063)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남아	557	(52.4)	만 3~5세	312	(29.4)
여아	506	(47.6)	만 6~8세(초등 1~3학년)	408	(38.4)
			만 9~11세(초등 4~6학년)	343	(32.3)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30세 미만	1	(0.1)	30세 미만	6	(0.6)
30~39세	351	(33.0)	30~39세	598	(56.3)
40~49세	676	(63.6)	40~49세	437	(41.1)
50~59세	29	(2.7)	50~59세	16	(1.5)
무응답	6	(0.6)	무응답	6	(0.6)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78	(7.3)	고졸	160	(15.1)
대졸	737	(69.3)	대졸	802	(75.4)
대학원졸	243	(22.9)	대학원졸	91	(8.6)
무응답	5	(0.5)	무응답	10	(0.9)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무직	5	(0.5)	전업주부	675	(63.5)
노동직	5	(0.5)	노동직	2	(0.2)
생산감독 및 서비스직	31	(2.9)	생산감독 및 서비스직	29	(2.7)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	178	(16.7)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	62	(5.8)
일반사무직 및 보안업무	27	(2.5)	일반사무직 및 보안업무	18	(1.7)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	538	(50.6)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	138	(13.0)
전문직	143	(13.5)	전문직	62	(5.8)
기업주 및 고위관리직	74	(7.0)	기업주 및 고위관리직	6	(0.6)
기타	52	(4.9)	기타	44	(4.1)
무응답	10	(0.9)	무응답	27	(2.5)
가정의 월수입					
150~349만원	241	(22.7)			
350~549만원	583	(54.8)			
550~749만원	239	(22.5)			

구분된다.

2) 사교육 실태 척도

사교육 실태 척도는 국내 선행 연구들(예 : 박지연, 2004a; 안지영, 2003; 우남희 외, 1993; 이기숙 외, 2002)에 근거하여, 사교육 실시 여부, 주당 사교육 시간, 사교육 종류 및 가짓수 등 크게 4가지의 사교육 실태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 전문가에 의해 안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사교육 실시 여부와 사교육 종류는 적절한 답을 보기에서 선택하는 방식의 명목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 문항은 '사교육을 실시한다' 또는 '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가운데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교육 종류를 묻는 문항은 한글/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등의 6가지 중

류 각각에 대해 ‘사교육을 실시한다’ 또는 ‘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가운데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주당 사교육 시간과 사교육 가짓수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2008년 2월 26일~3월 4일에 서울시의 강남 3개 지역 및 강북 1개 지역과 신도시 2개 지역에 거주하는 총 36명(유아기 : 11명, 학령기 초기 : 14명, 학령기 후기 : 11명)의 어머니들을 직접 만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의 이해를 돕도록 몇몇 문항들을 보다 쉽게 수정·보완하였다. 예를 들면, 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어’를 ‘한글/국어’로 수정하였으며, 현재의 사교육 실태를 강조할 필요가 있어 문항 중에 ‘현재’라는 용어를 추가하였다. 본 조사는 3월 17일 ~ 4월 25일에 예비조사의 경우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는 6군데 유치원/어린이집과 6군데 초등학교 기관장의 협조로 아동들을 통해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유아기의 경우 배부된 568부의 질문지 가운데 429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 75.5%), 학령기 초기는 656부 가운데 630부(회수율 : 96.0%), 학령기 후기는 656부 가운데 600부(회수율 : 91.5%)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1,659부의 질문지 가운데 응답이 부실하거나 가정의 월수입이 소득 5분위수의 최하위층인 1분위에 속하는 경우와 최상위층인 5분위 중 7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여 총 1,063부의 질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SPSS 15.0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카이제곱(χ^2) 검정, 일원변량분석, *t*검정,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교육 실시 여부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의 93.0%로서, 대부분의 아동이 학원, 개인/그룹과외, 가정방문교육, 학습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등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카이제곱(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교육 실시 여부는 아동의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2>). 아동의 연령은 학령기 후기(97.1%), 학령기 초기(95.1%), 유아기(86.2%) 순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원졸(95.5%), 대졸(93.1%), 고졸(87.2%) 순으로 아동은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350~549만원(94.2%)과 550~749만원(94.6%)인 경우가 150~349만원(89.2%)인 경우보다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었다. 반면, 사교육 실시 여부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주당 사교육 시간

연구대상 아동은 평균적으로 주당 8.95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많게는 주당 34.0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주당 사교육 시간은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3>).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학령기 후기는 주당 가장 많은 시간(12.07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령기 초기와 유아기는 각각 10.71시간과 3.15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가정의 월

<표 2> 아동의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사교육 실시 여부 (N=1,057~1,062)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교육 실시 여부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계	
아동의 연령 (N=1,062)	유아기	269(86.2%)	43(13.8%)	312(100.0%)	$\chi^2=34.07^{***}$ df=2
	학령기 초기	388(95.1%)	20(4.9%)	408(100.0%)	
	학령기 후기	332(97.1%)	10(2.9%)	342(100.0%)	
	전체	989(93.1%)	73(6.9%)	1,062(100.0%)	
아버지의 교육수준 (N=1,057)	고졸	68(87.2%)	10(12.8%)	78(100.0%)	$\chi^2=6.45^*$ df=2
	대졸	685(93.1%)	51(6.9%)	736(100.0%)	
	대학원졸	232(95.5%)	11(4.5%)	243(100.0%)	
	전체	985(93.2%)	72(6.8%)	1,057(100.0%)	
가정의 월수입 (N=1,062)	150~349만원	215(89.2%)	26(10.8%)	241(100.0%)	$\chi^2=7.51^*$ df=2
	350~549만원	548(94.2%)	34(5.8%)	582(100.0%)	
	550~749만원	226(94.6%)	13(5.4%)	239(100.0%)	
	전체	989(93.1%)	73(6.9%)	1,062(100.0%)	

*p<.05 ***p<.001

수입의 경우, 350 ~ 549만원(9.07시간)과 550 ~ 749만원(10.00시간)인 가정의 자녀가 150 ~ 349만원(7.59시간)인 가정의 자녀보다 보다 많은 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반면, 아동의 주당 사교육 시간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

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t검정을 통해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동의 주당 사교육 시간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아동의 연령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주당 사교육 시간 (N=1,034)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당 사교육 시간				
		N	M	SD	F	Duncan
아동의 연령	유아기	301	3.15	3.25	310.91*** df=2/1,031	A
	학령기 초기	399	10.71	5.62		
	학령기 후기	334	12.07	5.05		
	전체	1,034	8.95	6.13		
가정의 월수입	150~349만원	232	7.59	6.05	9.44*** df=2/1,031	A
	350~549만원	567	9.07	6.25		
	550~749만원	235	10.00	5.68		
	전체	1,034	8.95	6.13		

***p<.001

3.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교육 종류

한글/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등 사교육 종류별 사교육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 아동 가운데 한글/국어는 36.6%가, 영어는

69.5%가, 수학은 50.1%가, 음악은 40.6%가, 미술은 27.1%가, 체육은 35.7%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카이자승(χ^2) 검정을 통해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아동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한글/국어는 아동의

<표 4> 아동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사교육 종류 : 한글/국어, 영어 및 수학 (N=1,046~1,056)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글/국어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계	
아동의 연령 (N=1,056)	유아기	158(50.8%)	153(49.2%)	311(100.0%)	$\chi^2=55.34^{***}$ $df=2$
	학령기 초기	154(37.9%)	252(62.1%)	406(100.0%)	
	학령기 후기	77(22.7%)	262(77.3%)	339(100.0%)	
	전체	389(36.8%)	667(63.2%)	1,056(100.0%)	
사회인구학적 특성		영어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계	
아동의 연령 (N=1,056)	유아기	105(33.8%)	206(66.2%)	311(100.0%)	$\chi^2=279.31^{***}$ $df=2$
	학령기 초기	333(82.0%)	73(18.0%)	406(100.0%)	
	학령기 후기	301(88.8%)	38(11.2%)	339(100.0%)	
	전체	739(70.0%)	317(30.0%)	1,056(100.0%)	
가정의 월수입 (N=1,056)	150~349만원	140(58.3%)	100(41.7%)	240(100.0%)	$\chi^2=24.15^{***}$ $df=2$
	350~549만원	413(71.3%)	166(28.7%)	579(100.0%)	
	550~749만원	186(78.5%)	51(21.5%)	237(100.0%)	
	전체	739(70.0%)	317(30.0%)	1,056(100.0%)	
사회인구학적 특성		수학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계	
아동의 연령 (N=1,056)	유아기	94(30.2%)	217(69.8%)	311(100.0%)	$\chi^2=116.62^{***}$ $df=2$
	학령기 초기	194(47.8%)	212(52.2%)	406(100.0%)	
	학령기 후기	245(72.3%)	94(27.7%)	339(100.0%)	
	전체	533(50.5%)	523(49.5%)	1,056(100.0%)	
아버지의 교육수준 (N=1,051)	고졸	49(62.8%)	29(37.2%)	78(100.0%)	$\chi^2=10.38^{**}$ $df=2$
	대졸	378(51.8%)	352(48.2%)	730(100.0%)	
	대학원졸	105(43.2%)	138(56.8%)	243(100.0%)	
	전체	532(50.6%)	519(49.4%)	1,051(100.0%)	
어머니의 교육수준 (N=1,046)	고졸	96(60.4%)	63(39.6%)	159(100.0%)	$\chi^2=16.06^{***}$ $df=2$
	대졸	399(50.1%)	397(49.9%)	796(100.0%)	
	대학원졸	31(34.1%)	60(65.9%)	91(100.0%)	
	전체	526(50.3%)	520(49.7%)	1,046(100.0%)	

** $p < .01$ *** $p < .001$

연령에 따라, 영어는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수학은 아동의 연령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음악과 체육은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미술은 아동의 연령,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

육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4>, <표 5>).

한글/국어 사교육은 유아기(50.8%), 학령기 초기(37.9%), 학령기 후기(22.7%) 순으로 많이 받고 있었다. 영어의 경우, 학령기 후기(88.8%), 학령기 초기(82.0%), 유아기(33.8%) 순으로, 월수

<표 5> 아동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월수입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교육 종류 : 음악, 미술 및 체육 (N=1,029~1,056)

사회인구학적 특성		음악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계	
아동의 연령 (N=1,056)	유아기	34(10.9%)	277(89.1%)	311(100.0%)	$\chi^2=196.38^{***}$ $df=2$
	학령기 초기	255(62.8%)	151(37.2%)	406(100.0%)	
	학령기 후기	143(42.2%)	196(57.8%)	339(100.0%)	
	전체	432(40.9%)	624(59.1%)	1,056(100.0%)	
어머니의 교육수준 (N=1,046)	고졸	50(31.4%)	109(68.6%)	159(100.0%)	$\chi^2=9.06^*$ $df=2$
	대졸	335(42.1%)	461(57.9%)	796(100.0%)	
	대학원졸	45(49.5%)	46(50.5%)	91(100.0%)	
	전체	430(41.1%)	616(58.9%)	1,046(100.0%)	
가정의 월수입 (N=1,056)	150~349만원	75(31.3%)	165(68.8%)	240(100.0%)	$\chi^2=17.76^{***}$ $df=2$
	350~549만원	238(41.1%)	341(58.9%)	579(100.0%)	
	550~749만원	119(50.2%)	118(49.8%)	237(100.0%)	
	전체	432(40.9%)	624(59.1%)	1,056(100.0%)	
사회인구학적 특성		미술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계	
아동의 연령 (N=1,056)	유아기	109(35.0%)	202(65.0%)	311(100.0%)	$\chi^2=32.53^{***}$ $df=2$
	학령기 초기	124(30.5%)	282(69.5%)	406(100.0%)	
	학령기 후기	55(16.2%)	284(83.8%)	339(100.0%)	
	전체	288(27.3%)	768(72.7%)	1,056(100.0%)	
아버지의 교육수준 (N=1,051)	고졸	11(14.1%)	67(85.9%)	78(100.0%)	$\chi^2=7.43^*$ $df=2$
	대졸	208(28.5%)	522(71.5%)	730(100.0%)	
	대학원졸	68(28.0%)	175(72.0%)	243(100.0%)	
	전체	287(27.3%)	764(72.7%)	1,051(100.0%)	
어머니의 교육수준 (N=1,046)	고졸	24(15.1%)	135(84.9%)	159(100.0%)	$\chi^2=14.01^{**}$ $df=2$
	대졸	235(29.5%)	561(70.5%)	796(100.0%)	
	대학원졸	26(28.6%)	65(71.4%)	91(100.0%)	
	전체	285(27.2%)	761(72.8%)	1,046(100.0%)	
어머니의 취업 여부 (N=1,029)	취업모	84(23.4%)	275(76.6%)	359(100.0%)	$\chi^2=4.45^*$ $df=1$
	비취업모	198(29.6%)	472(70.4%)	670(100.0%)	
	전체	282(27.4%)	747(72.6%)	1,029(100.0%)	

<표 5> 계속

사회인구학적 특성		체육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계	
아동의 연령 (N=1,056)	유아기	79(25.4%)	232(74.6%)	311(100.0%)	$\chi^2=60.87^{***}$ $df=2$
	학령기 초기	205(50.5%)	201(49.5%)	406(100.0%)	
	학령기 후기	96(28.3%)	243(71.7%)	339(100.0%)	
	전체	380(36.0%)	676(64.0%)	1,056(100.0%)	
어머니의 교육수준 (N=1,046)	고졸	59(37.1%)	100(62.9%)	159(100.0%)	$\chi^2=10.89^{**}$ $df=2$
	대졸	272(34.2%)	524(65.8%)	796(100.0%)	
	대학원졸	47(51.6%)	44(48.4%)	91(100.0%)	
	전체	378(36.1%)	668(63.9%)	1,046(100.0%)	
가정의 월수입 (N=1,056)	150~349만원	67(27.9%)	173(72.1%)	240(100.0%)	$\chi^2=10.08^{**}$ $df=2$
	350~549만원	215(37.1%)	364(62.9%)	579(100.0%)	
	550~749만원	98(41.4%)	139(58.6%)	237(100.0%)	
	전체	380(36.0%)	676(64.0%)	1,056(100.0%)	

* $p<.05$ ** $p<.01$ *** $p<.001$

입의 경우 550~749만원(78.5%), 350~549만원(71.3%), 150~349만원(58.3%) 순으로 아동은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었다. 수학의 경우, 학령기 후기(72.3%), 학령기 초기(47.8%), 유아기(30.2%) 순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부 : 62.8%, 모 : 60.4%), 대졸(부 : 51.8%, 모 : 50.1%), 대학원졸(부 : 43.2%, 모 : 34.1%) 순으로 아동은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음악 사교육과 관련하여, 학령기 초기(62.8%), 학령기 후기(42.2%), 유아기(10.9%) 순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원졸(49.5%), 대졸(42.1%), 고졸(31.4%) 순으로, 가정의 월수입은 550~749만원(50.2%), 350~549만원(41.1%), 150~349만원(31.3%) 순으로 실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술의 경우, 유아기(35.0%), 학령기 초기(30.5%), 학령기 후기(16.2%) 순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졸(부 : 28.5%, 모 : 29.5%), 대학원졸(부 : 28.0%, 모 : 28.6%), 고졸(부 : 14.1%, 모 : 15.1%) 순으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비취업모(29.6%)인 경우가 취업모(23.4%)인 경우에 비해 높은 사

교육 실시 비율을 보였다. 체육 사교육의 경우, 학령기 초기(50.5%), 학령기 후기(28.3%), 유아기(25.4%) 순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원졸(51.6%), 고졸(37.1%), 대졸(34.2%) 순으로, 가정의 월수입은 550~749만원(41.4%), 350~549만원(37.1%), 150~349만원(27.9%) 순으로 실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교육 가짓수

연구대상 아동은 평균적으로 3.57가지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많게는 14가지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이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가짓수는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6>).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학령기 초기는 가장 많은 가짓수(4.26가지)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학령기 후기(3.70가지)와 유아기(2.55가지) 순이었다. 가

<표 6> 아동의 연령, 가정의 월수입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교육 가짓수 (N=1,035~1,062)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교육 가짓수				
		N	M	SD	F	Duncan
아동의 연령 (N=1,062)	유아기	312	2.55	1.90	66.16*** df=2/1,059	A
	학령기 초기	408	4.26	2.20		C
	학령기 후기	342	3.70	1.80		B
	전체	1,062	3.57	2.11		
가정의 월수입 (N=1,062)	150~349만원	241	2.98	1.95	15.03*** df=2/1,059	A
	350~549만원	582	3.65	2.08		B
	550~749만원	239	3.99	2.21		C
	전체	1,062	3.57	2.11		
사회인구학적 특성		N	M	SD	t	
어머니의 취업 여부 (N=1,035)	취업모	360	3.33	2.02	2.51* df=1,033	
	비취업모	675	3.68	2.15		
	전체	1,035	3.56	2.11		

*p<.05 ***p<.001

정의 월수입의 경우, 550~749만원(3.99가지), 350~549만원(3.65가지), 150~349만원(2.98가지) 순으로 아동은 보다 많은 가짓수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아동이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가짓수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t검정을 통해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교육 가짓수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6>). 비취업모의 자녀(3.68가지)는 취업모의 자녀(3.33가지)보다 더 많은 가짓수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5.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사교육의 실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사교육 실시 여부, 주당 사교육 시간, 사교육 종류 및 가짓수 등의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아동의 연

령과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월수입, 주당 사교육 시간 및 사교육 가짓수는 연속변수화하였으며,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사교육 실시 여부 및 종류는 더미변수화하였다.¹⁾ 또한,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VIF와 TOL을 확인한 결과, 각각 10 이하(1.03~1.79)와 0.1 이상(0.56~0.97)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Berry & Feldman, 1990).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교육 실시 여부의 경우, 아동의 연령, 아버지의 교육년수, 어머니의 취업 여부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사교육 실시 여부를 설명하

1) 아동의 연령, 가정의 월수입, 주당 사교육 시간 및 사교육 가짓수는 각각의 수치를 그대로 입력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로 변환하여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을 각각 12, 14, 16 및 18로 입력함.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각각 1과 0으로, 사교육 실시 여부 및 종류는 실시함과 실시하지 않음을 각각 1과 0으로 입력함.

<표 7>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β)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교육 실시 여부	주당 사교육 시간	사교육 종류						사교육 가짓수
			한글/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아동의 연령	.20***	.54***	-.27***	.47***	.33***	.24***	-.16***	.01	.22***
아버지의 교육년수	.10*	-.02	-.04	.05	-.04	.03	-.02	-.03	.00
어머니의 교육년수	-.02	-.03	-.13**	.04	-.10*	.08	.07	.05	.01
가정의 월수입	.06	.16***	.08*	.13***	.09**	.12**	.09*	.12**	.21***
어머니의 취업 여부	-.07*	-.01	-.03	-.05	-.04	-.05	-.09**	-.03	-.14***
R^2	.05	.33	.08	.25	.14	.09	.04	.02	.10
F	11.31***	97.27***	18.65***	66.18***	32.16***	18.94***	8.90***	3.54**	23.19***

주) 어머니의 취업 여부 : 취업모=1, 비취업모=0, 사교육 실시 여부 및 종류 : 실시함=1, 실시하지 않음=0.

* $p<.05$ ** $p<.01$ *** $p<.001$

는 정도는 5%이었다. 주당 사교육 시간의 경우,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월수입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33%이었다. 사교육 종류의 경우, 한글/국어 및 수학 사교육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년수, 가정의 월수입 순으로, 영어 및 음악 사교육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월수입 순으로, 미술 사교육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월수입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체육 사교육에 대해서는 가정의 월수입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인들이 각 과목의 사교육 실시 여부를 설명하는 정도는 2~25%에 속하였다. 사교육 가짓수의 경우, 아동의 연령, 가정의 월수입, 어머니의 취업 여부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0%이었다(<표 7>).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이 받고 있는

사교육 실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첫째, 본 연구대상 아동들은 대부분(93.0%)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사교육 실시 여부는 아동의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연령과 관련하여, 학령기 아동(96.1%)은 유아기 아동(86.2%)에 비해 보다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는 유아기 혹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기 아동 중 약 86.0%(이기숙 외, 2002)와 학령기 아동 중 95.8%(홍성인, 2004)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결과에서 발견된 양 연령층의 높은 사교육 실시 비율은 현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이 얼마나 널리 보급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보다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졸과 대졸 이상 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선행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어머니의 경우에 초점을 두어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사교육 실시

비율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반면(권정윤·장영희, 2007; 김보림, 2007; 박수진, 2001; 우남희 외, 1993),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모두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발견된 것이다.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월수입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36, $p < .001$)을 보건대, 이러한 결과는 바로 이어서 언급될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차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정의 월수입의 경우, 350만원을 기준으로 수입이 많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에게 사교육을 보다 많이 시키고 있었다. 월수입에 따른 사교육 비율의 차이는 선행 연구결과들(김인숙·여정성, 1996; 박수진, 2001; 안지영, 2003; 이기숙 외, 2002; 정영숙, 1997)과도 유사하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월수입을 350~549만원과 550~749만원으로 구분한 본 연구에서 양 집단 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은 매우 흥미롭다. 즉, 월수입이 350~749만원인 경우는 그 범위가 400만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유사한 정도로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교육 실시 여부는 월수입 350만원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08년 우리나라 소득 5분위의 중간, 즉 3분위의 평균치인 334만원(통계청, 2008)에 근사한 액수이기도 하다.

둘째, 아동이 받고 있는 주당 사교육 시간은 학령기 후기, 학령기 초기, 그리고 유아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령기 초기와 후기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10시간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는 대략 이 시기 아동들이 주말을 포함하여 하루에 1.5시간 이상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을 따로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의 또래관계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학령기 또래관계는 다양한 또래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볼 때(고윤주·김영신·노주선, 2000; 오원정, 1999; 정윤주, 2004; Berndt & Keefe, 1995), 사교육으로 인해 이 시기 아동의 또래간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또래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의 월수입이 350만원 이상인 집단에 속한 아동은 35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주당 더 많은 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 시간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역시 증가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가정의 월수입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이 더 많은 시간의 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또한, 앞서 사교육 실시 여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당 사교육 시간 역시 월수입이 350~549만원인 집단과 550~749만원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 시간이 월수입 400만원을 기준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오지수 외, 2009)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아동의 주당 사교육 시간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선행 연구결과(오지수 외, 2009)와 일치하였다.

셋째, 아동의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운데, 아동의 연령은 아동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이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구체적 차이는 사교육의 종류마다 다양한 편이었다. 예를 들면, 한글/국어는 유아기 아동이 학령기 초기 및 후기 아동에 비해 훨씬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영어와 수학은 이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유아기 아동의 경우 취학 전에 유치원과 같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한글을 학습한다는 연구결

과들(권정윤·장영희, 2007; 박지연, 2004a; 이기숙 외, 2002; 홍은자, 2001)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취학전 학습 준비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 유아기에 비해 학령기 아동들이 보다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점은 많은 부모들이 영어 교육이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시기를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인식한다는 연구결과(이명조, 2005)와 일맥상통한다.

예체능 종류인 음악과 체육의 경우, 학령기 아동이 유아기 아동보다 훨씬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학령기 초기 아동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기숙 외(2002)에서 밝혔듯이, 이는 예체능 사교육의 경우 한글과 같은 학습 관련 교과목을 준비한 후 시작되기 쉽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육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다양한 신체활동 놀이에 불과하나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정규 교과목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면서, 아동은 구체적인 운동 기술을 사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미술 사교육은 유아기 아동이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학령기 초기와 학령기 후기 순이었다. 이처럼 이른 시기부터 미술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과목의 특성상 유아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한글/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 가운데, 수학에서만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사교육 실시 여부에 차이가 발견되어, 고졸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수학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졸 이하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권정윤·장영희, 2007)에 근거하여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은 소위 주요 교과목으로 잘 알려진

영어와 수학 가운데 정규 교과과정으로 정착된 수학에 대해 보다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기 쉽다는 점에서, 자녀로 하여금 보다 많은 수학 사교육을 받게 할지도 모른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사교육 종류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어 사교육의 경우, 가정의 월수입이 350만원 이상인 집단은 그 미만인 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550~749만원 집단은 또한 350~549만원 집단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음악과 체육 사교육의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이는 앞서 사교육 실시 여부와 주당 사교육 시간에서 월수입 350만원이 일종의 기준치 역할을 하였던 점과 비교되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영어를 비롯하여 고가의 악기 구입비와 레슨비가 요구되는 예체능 과목이라는 특성상 가정의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녀에게 미술 사교육을 보다 많이 시키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른 사교육 종류의 실시 여부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이에 관해서는 상대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뒤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은 평균 3.57가지이었는데, 학령기 초기 아동은 4.26가지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령기 후기와 유아기 순이었다. 이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의 가짓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안지영, 2003; 이기숙 외, 2002)과 유사하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고학년 아동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결과는 앞서 언급한 주당 사교육 시간 및 사교육 종류와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다. 즉, 학

령기 후기에 주요 교과영역이 점차 중요시되면서, 학령기 후기 아동들은 이전 시기에 비해 영어와 수학과 같은 주요 교과목에 초점을 두어 사교육을 받기 쉬우므로, 그 가짓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월수입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교육 가짓수가 많은 것으로 발견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월수입이 많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아동이 보다 많은 가짓수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들(권정윤·장영희, 2007; 김보림, 2007; 박지연, 2004a; 이기숙 외, 2002)과 유사하다. 특히, 사교육은 공교육과는 다르게 선택적 특성이 강하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박수진, 2001; 박지연, 2004b; 오지수 외, 2009)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비취업모의 자녀들은 취업모의 자녀들에 비해 더 많은 가짓수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결과(이기숙 외, 2002)와 일치하였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어머니들은 시간적으로 보다 더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 자녀에게 좀 더 많은 가짓수의 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월수입,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교육년수 및 취업 여부가 사교육 실시 여부, 사교육 종류 및 가짓수 등에서 다소의 영향력을 나타내긴 하였으나, 무엇보다도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월수입이었다. 즉,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월수입은 거의 모든 사교육 실태 변인들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아동의 연령은 가정의 월수입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사교육 실태에 어떤 정도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 우리 사회의 사교육 실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연령이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가장 커다란 상대적 영향력을 통해 사교육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연령과 더불어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월수입이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계층에 따른 사교육비의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실제로, 소득 5분위인 상위 20%와 1분위인 하위 20%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321,253원과 46,240원으로서 양자간 격차는 무려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통계청 자료는 이를 뒷받침한다(헤럴드경제, 2009. 4. 13). 이 외에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앞서 살펴보았던 각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교육 실시 여부의 경우에서와 달리,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낸 셈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건대,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사교육 실태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이기숙 외,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이 받고 있는 사교육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90%에 가까운 유아기 아동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이 어린 연령층까지 보편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학 전의 부적절한 인지적 자극이 유아기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신의진, 2001; 우남희, 2002; 우남희 외, 2005; 홍은자, 2001; Burts et al., 1990; Clouder, 2004; Elkind, 1987; O'Brien,

1988; Soderman, 1984), 30~50%의 유아기 아동들이 한글/국어, 영어, 수학 등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은 간과하기 어렵다. 유사한 맥락에서, 학령기 아동들이 주당 10시간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점 역시 아동발달적 측면에서 커다란 우려가 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선정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지역의 자료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가정의 월수입이 150~749만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긴 하였으나, 그 평균치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 소득 4분위인 중상류층의 수치에 해당된다. 연구대상도 유아기와 학령기만을 포함함으로써, 대입을 목표로 사교육이 더욱 과열화되고 있는 청소년기가 제외되었다. 이러한 제한점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을 포함하는 전국적 표집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후속 연구는 사교육이 팽배한 몇몇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OECD국가와의 비교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사교육의 실태에 초점을 두었으나, 앞으로의 연구는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결과, 즉 이러한 사교육의 실태가 각 발달단계에 속한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이 유아기 혹은 학령기 등 하나의 발달단계에 초점을 둔 데 반해, 본 연구는 양 발달단계에 속한 보다 많은 연령층의 연구대상을 포함하고자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그 변인들을 보다 다양화함과 동시에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과열된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경혜순(2007). 초등학생의 영어교육 관련 사교육 참여 실태 및 효과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윤주·김영신·노주선(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65-78.
- 권정윤(2007).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2), 1-19.
- 권정윤·장영희(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기능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87-99.
- 권혜미(2004). 초등학교 영어 사교육의 효과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림(2007). 유아 조기·특기 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림·엄정애(2007).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8), 13-24.
-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37-149.
- 김지연(2001). 조기영어교육이 초등학교(초등3미만의 영·유아)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과 결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일보(2009. 6. 24). <靑 '사교육과의 전쟁' 선포> 年 20조! '블랙홀 사교육비'. [http : //www.munhwa.com](http://www.munhwa.com)에서 2009년 6월 30일 인출.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특기

- 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2004a). 어머니 특성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2004b). 부모의 SES에 따른 유아 사교육 실태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 · 이숙현 · 백진아(2005). 어머니 특성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157-179.
- 백혜정 · 김현신 · 우남희(2005). 조기 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 신의진(2001). 과잉조기학습이 어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어린이교육협회 춘계회원연수 자료집*, 25-29.
- 안지영(2003).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 압력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1), 95-111.
- 오원정(1999).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관계망과 아동의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지수 · 이규민 · 강진구(2009).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교육 실태와 자녀양육 스트레스. *아동교육*, 18(1), 183-193.
- 우남희(2002). 한국의 조기교육. 그 허와 실.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24.
- 우남희 · 백혜정 · 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우남희 · 현은자 · 이종희(1993). 사설학원과 가정 중심의 조기교육 실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 49-64.
- 이기숙 · 장영희 · 정미라 · 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 · 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명조(2005). 조기영어교육 효율성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3), 107-127.
- 이옥(1997). 조기교육 경험요인과 아동의 창의성과의 관계. *교육연구*, 5, 99-112.
- 임자성 · 채규만(2005). 초등학교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관련한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0(3), 295-311.
- 정양수 · 김경애(2008). 가정환경과 영어 사교육이 초등학교생의 영어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20(2), 273-295.
- 정영숙(1997). 사교육비와 교육문화의식.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6-85.
- 정윤주(2004). 또래관계 경험 및 가족지지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2(11), 1-15.
- 정진석(2002). 초등학교 영어 사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숙(2006). 사교육의 유형과 초등학교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력 및 학업성취 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8). 가계동향조사 :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 평균 가계수지. 통계청 웹사이트 [http : //www.kosis.kr](http://www.kosis.kr)에서 2009년 1월 23일 인출.
- 헤럴드경제(2009. 4. 13). 사교육비 양극화 갈수록 심화. 헤럴드경제 웹사이트 [http : // www.heraldbiz.com](http://www.heraldbiz.com)에서 2009년 4월 16일 인출.
- 홍성인(2004). 서울지역 초등학교 사교육 기회차이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자(2001).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 · 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신(2003). 조기교육에 대한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열린교육연구*, 11(2), 69-85.
- Berndt, T. J.,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12-1329.
- Berry, W. D., & Feldman, S. (1990).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
- Bruner, J. (1962). *On knowing*. Cambridge, MA : Belknap Press.
- Burts, D. D., Hart, C., Chaleswort, C. H., & Kirk, A.

- (1990). A comparison of frequencies of stress behaviors observed in kindergarten children in classroom with developmentally appropriate instructional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407-423.
- Clouder, C. (2004). The push for early academic instruction. *Encounter*, 17, 10-16.
- Elkind, D. (1987). Superbaby syndrome can lead to elementary school burnout. *Young Children*, 42, 14.
- O'Brien, S. J. (1988). Childhood stress : A creeping phenomenon. *Childhood Education*, 64, 156-166.
- Soderman, A. K. (1984). Formal education for four year-old? That depends. *Young Children*, 40, 12-13.
-
- 2009년 4월 30일 투고, 2009년 7월 5일 수정
2009년 7월 7일 채택